■ 제주도감사위원회, '도·행정시 2023년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 감면·비과세 3974억··· 부적정 사례 수두룩

전년비 26% 증가한 813억 ★… 도 재정 부담으로 47건 적발해 18억 추징… 감면액 등 매년 증가추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까지 발 행하는 재정난에도 지방세를 감면 등을 허술하게 관리하며 혈세가 줄 줄 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도와 행 정시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운 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 련 공무원 16명에 대해 신분상 조 치와 18억7800만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각종 법률과 조례에 따 라 감면해주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023년도 기준 3974억원 이다. 2022년 3161억원 대비 813억 원 늘었고 비과세·감면율은 17.5% 로 전년 대비 3.68%p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지방세 징수액 은 전년 대비 5.17% 감소한 반면 비과세·감면액은 25.7% 늘어나는 등 비과세・감면액이 매년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방세 와 교부세 등 세입이 줄면서 제주 도는 2020년 이후 매해 평균 2823 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와 서귀

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한 부동 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면서 토지보상법 상 사업인정을 받지 않 은 사업이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 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 를 통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 해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특히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터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 지 2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취 득한 부동산에 대해 2년 이내 공사

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면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세무조사 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조사책임자가 세무조사 내용 을 보고도 않은 채 세무조사를 임 의로 종결처리한 경우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제주도의 재정등급은 2023년 기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가 중요한데도 감면 업무를 허술하 게 처리하고 감면 후에도 사후관리 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 서귀포에 '댕댕이 힐링 쉼팡' 선뵌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65일 만 1억 모금 전국 지자체 중 최단기간 달성… 가시리에 조성

서귀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사업으로 추진한 반려견 전용 공간인 '댕댕이 힐링 쉼팡' 사업 모 금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단기 간에 1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댕댕이 힐링 쉼팡을 표선면 가시리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반려견과 함께 제주여행에 나서는 이들을 위한 고향사랑기부 제 지정기부사업으로 '댕댕이 힐링 쉼팡'모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 작, 65일 만인 6일 오후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기부 와 달리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사 업 중에서 취지에 공감하거나 기부 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특정 '사 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재 제주시(6일 오후 2시 기준 모금률 92.37%-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 켜줄게!')를 포함한 70개 지자체가 지정기부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팀 직제가 신설되고, 전국 반려인이 1500만명 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댕댕이 힐 링 쉼팡 사업을 구상, 지난 1월부터 1억원 조성을 목표로 모금을 펼쳐 왔다.

과 청년회 등 읍면동 자생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했다. 또 서귀포 시 교류도시를 통한 모금, 반려견 커뮤니티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제주관광공사와 서귀포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서귀포시 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기부자 73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는 모금 목표액을 달성함에 따 라 이달 중 사업 예정지를 확정하 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착공 해 8월쯤 댕댕이 힐링 쉼팡 개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 부지는 표 선면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인근 약 3만3000㎡를 임대하기 위해 마을과 협의 중이다.

또 1억원의 모금액 외에 댕댕이 힐링 쉼팡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국 120여 곳의 댕댕이 쉼 팡을 찾아 운영 상황과 장·단점도 살펴봤는데, 서귀포시만의 차별화 된 공간으로 조성해 반려견을 동반 모금에는 농·수협 등 지역 기관 하는 여행객을 제주로 적극 유치한 다는 구상이다.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반려견 전 용 힐링 공간이 전국의 1500만 반 려인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 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 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 수립 올해부터 공공기관 사용 전면 금지

#### 민간 영역 각종 행사·축제 배달음식 다회용기 지원

올해부터 제주 공공기관 내 1회용 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도심지 배 달음식 다회용기 지원에 나선다. 제 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으로 민 간과 공공 부문 전반에 걸친 '2025년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 천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이번 계획에서 도내 공공기관 내 1회용품 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용 실적 조사를 통해 저감 목표를 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생수, 종이컵, 물티슈 등 1회용품 구매량을 조사하고 제주도 관 1회용품 점검반'을 운영해 공공 기관 내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 로 줄여 나가다.

민간 영역의 1회용품 감축을 위 한 지원도 늘린다. 올해 3억원을 투 입해 '1회용품 안 쓰는 제주들불축 제'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한다. 이 사 업은 지난해 시작돼 56개 축제에 130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용 량이 급격히 늘어난 1회용 배달용 기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3 억2900만원을 들여 '배달음식 다회 용기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거주・사무 인 구가 많은 노형동과 연동에서 배달 앱(배달의민족, 먹깨비)으로 음식 을 주문할 때 반납이 가능한 스테 인리스 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에게 주 3회 반찬이 제공되는 '제주가치돌봄 식 환경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민- 사 지원 서비스'에도 4월부터 다회 용기를 시범 도입한다. 도내 주요 공공 캠핑장과 야영장, 주요 체육 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2억),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 (1억),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 사업 (1억) 등도 벌인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마라도 살레덕포구 전경.

서귀포시, 마라도 살레덕포구 정비

6억원 투입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추진

서귀포시가 올해 섬 마라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살레덕포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마라도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4차 특수상황지역 개 발사업'으로 올해 6억원(국비 4억 8000만원, 지방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인 특수상 황지역 개발사업은 섬 지역의 생 산·소득과 생활기반시설 정비·확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섬 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꾀하 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다. 2018년 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85억원 (국비 68억원, 지방비 17억원)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시는 마라도 살레덕포구에 테트 라포드(TTP·64t급) 45개 보강 등 을 위해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마 무리했으며 상반기 중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한라생태숲 탐방로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생태숲 탐 방 환경 개선과 생태 관광 활성화 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 혔다.

제주도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탐방로 개선과 탐방객 센터 등 시 설물 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

표는 숲길의 자연적 특성을 살려 탐방객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것

탐방로 개선은 올해부터 2027년 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자생 식물인 왕벚나무, 동백나무, 굴거리 나무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 탐방로와 90m 길이의 숲터널(제주 왕벚나무)가 조성된다. 이상민기자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 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하여 입안중인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제주특별자치도 도시 계획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7일 서 귀 포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1616번지 ○ 변경사유(취지)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전기관 및
  -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내 주거기능의 안정화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용지를 복합용지(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변경 주요내용
가구 및 획지계획		○ (기정)관광숙박용지 <b>→ (변경) 복합용지</b>
건축물	용도	○ (기정)관광숙박시설→ (변경) 공동주택 (80% 이상)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20% 미만)
	최고높이	○ (기정)30m이하 → <b>(변경) 40m이하</b>
	건축	○ (기정)연결녹지2 : 25m 지정 → (변경) 연결녹지2 : 3m 지정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는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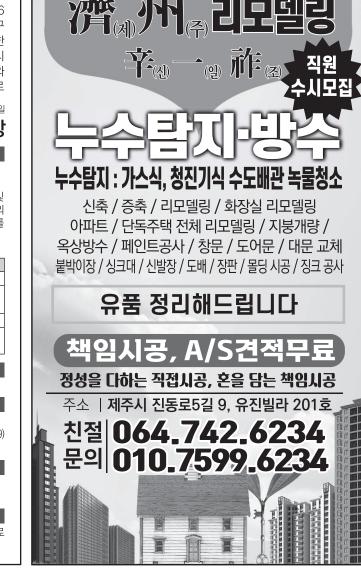
3.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사항

○ 열람기간: 2025. 3. 7. ~ 2025. 3. 28. (21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귀포시 도시과(☎064-760-2973, FAX 760-2979)

대륜동주민센터(☎064-760-4764)

### 4.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16:00 ○ 장 소: 대륜동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과(☎064-760-2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 AV E R 에 그랜드보청기 ▼ ○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